

## 『譯語類解』右音 ‘ㄱ’의 音價에 대한 再考\*

이춘영\*\*

### 【목 차】

1. 서론
2. 한국 한자 ‘ㄱ’음에 대한 고찰
3. 중국 漢語 어음변천과 ‘ㄱ’ 반영 내용 분석
  - 1) 현대 漢語 [-uo]음 글자
  - 2) 현대 漢語 [-ə]음과 [-o]음 글자
4.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의 ‘ㄱ’음 표기 현황
5. ‘ㄱ’표기 해석에 따른 기타 어음변천에 대한 고찰
6. 결론

### 【초록】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에는 당시 중국 어휘의 발음을 諺文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어음체계에 익숙한 한국인은 중국어 발음을 한국어로 표기함에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인지한계와 표기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중국 漢語의 어음변천내용을 고찰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 한국의 對音자료는 표음체계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정확한 자료의 가치가 제고된다. 본 논문에서는 『譯語類解』右音에 나타나는 ‘ㄱ’의 표기대상을 漢語 어음변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의 표기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표기내용에 대한 再考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키워드】『譯語類解』, 『譯語類解』右音, 조선시대 중국어학습서, 중국어학습서 표기법, ‘ㄱ’의 표기음

\* 이 연구는 2019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leechy@ynu.ac.kr)

## 1. 서론

중국 어음의 변화과정을 연구함에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는 역대 중국 韻書와 字典이 가장 대표적이다. 중국의 韻書와 字典類의 어음표기는 反切이나 直音法이 기본이 된다. 그러나 反切과 直音에 사용된 漢字의 어음변화는 韻書와 字典의 한계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음운학자들이 타국의 對音 자료를 참고하여 중국의 어음변천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 문자로 표기된 역대 중국어 발음 표기내용은 매우 직접적으로 어음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중국어 학습서는 당시 중국 어휘의 발음과 의미를 諺文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중 양국의 모국어 발음체계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 『東國正韻』의 申叔舟 「序文」에는 “吾東方表裏山河，自爲一區，風氣已殊於中國，呼吸豈與華音相合歟！然則語音之所以與中國異者，理之然也。(우리나라의 안팎 산하가 스스로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호흡이 어찌 중국음과 서로 합치될 것인가! 그리하여, 어음이 중국과 다른 것은 이치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여, 한중 언어의 발음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음체계가 다른 조선시대 諺文으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함에도 일정한 한계가 나타난다. 실제로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에서는 인위적인 표기법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四聲通攷』에서는 齒頭音을 ‘ㄱ’·‘ㄷ’·‘ㄸ’으로 표기하고, 整齒音을 ‘ㄴ’·‘ㄹ’·‘ㄻ’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부호는 조선인의 발음체계에는 없는 중국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시대 중국어 회화 학습서의 표음부호가 중국 근대음의 자료로 활용됨에는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일부 어음에 대한 표음의 한계이다. 조선시대 언어의 발음체계에 없는 중국발음은 조선인이 청각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발음을 구분하더라도, 인위적인 표기부호를 만들거나 유사한 諺文으로 대체하여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둘째, 한국어의 변천이다. 일반 현대 한국인이 조선시대 諺文 문장을 읽으면 소통이 불가능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어음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음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특히,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ㄱ’음 표기의 音價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조선시대 역관을 뽑는 시험에서 주된 교재로 사용되었던 『譯語類解』(1690)<sup>1)</sup>은 당시 널리 보급되었던 중국어 어휘집이었다. 『譯語類解』가 편찬된 17세기는 중국의 淸나라 康熙년간에 속한다. 당시의 중국의 수도는 燕京(지금의 北京)이다. 조선의 외교사절단이 방문해야 하는 곳이 燕京이었으므로, 『譯語類解』를 통해 조선시대 譯官이 학습하고자 한 언어는 北京지역 언어이다. 그러므로 『譯語類解』의 언어적 기저는 북경지역 언어이다. 『譯語類解』는 역관 愼以行·金敬俊·金指南 등이 漢人 文可尙과 鄭先甲에게 質問하여 완성한다. 漢人 文可尙

1) 김하라, 「『譯語類解』의 편찬관 譯官 金指南」, 『奎章閣』, 5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7.06, p.114.

과 鄭先甲은 『譯語類解』의 監修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司譯院에서 역관들에게 漢語를 가르쳤다.<sup>2)</sup> 『譯語類解』의 편찬과정에 중국인이 적극 개입하여 『譯語類解』의 정확성과 영향력이 인정된다. 『譯語類解』는 당시의 중국어 어휘를 諺文으로 표음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특히 右音은 당시 漢語 口語의 실제어음을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漢語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譯語類解』 右音 표기법 중 ‘ㄱ’은 주로 현대 중국어에서 [-uo]로 변하는 글자와 일부 [-o]나 [-ə]로 변한 글자의 발음을 표기한다. ‘ㄱ’의 표기내용에 合口 [-uo] 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譯語類解』 ‘ㄱ’의 音價가 단순히 단모음을 표기하는 부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譯語類解』(1690) 右音 ‘ㄱ’의 音價분석은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에 나타나는 ‘ㄱ’음의 실제 내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나아가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의 표기법과 연구 방법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중국 17세기 口語를 반영한 『譯語類解』(1690) 右音 ‘ㄱ’의 실제 音價에 대한 분석은 표기대상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대 중국어에서 [-uo]나 [-o]·[-ə]로 변천하는 글자는 대부분 『廣韻』 歌韻·戈韻·鐸韻·藥韻·覺韻·陌韻·麥韻·德韻·末韻·沒韻·薛韻에 포함된 일부 글자이다. 이 글자는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음변화를 거쳤다. 본 논문은 중국 漢語의 근대 어음을 바탕으로 『譯語類解』의 ‘ㄱ’음 표기가 단순한 단모음 표기인지, 복모음의 특정 모음이 강조된 표기법인지, 또는 圓脣性 발음이 강조된 표기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한국 한자 ‘ㄱ’음에 대한 고찰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에는 중국어 복모음(+종성)을 표기하기 위해 ‘ㄱ’·‘ㄴ’·‘ㄷ’·‘ㄹ’·‘ㄱ’·‘ㄴ’·‘ㄷ’·‘ㄹ’ 등의 다양한 표기법들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자체가 단모음이 많은 언어이며 이중모음이나 삼중모음이 발달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국어에 없는 발음체계에 대한 조선인의 聽覺적 인지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uo]는 한국 어음체계로 볼 때 ‘ㅌ’와 ‘ㄱ’이 합쳐진 발음에 근접하지만, 한국 어음체계에는 ‘ㅌ’와 ‘ㄱ’이 조합된 복모음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인은 이 생소한 발음을 청각적 인지에 따라 다양하게 표기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ㄱ’음의 표기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본 절에서는 먼저 한국 한자음을 근거로 조선인의 ‘ㄱ’음에 인지내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 한자음의 모태음에 대해서는 上古音說·切韻音說·唐代 長安音說·宋代 開封音說 등이 있다. 한국인이 漢字와 漢字音을 수용했을 때의 認知내용과 反映형식은 漢字音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ㄱ’음으로 반영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廣韻』 模<sup>3)</sup>韻(合口一等)과 豪韻(開口一等)이다. 『廣韻』 模韻과 豪韻의 어음변천에 대해서 王力은 다음과 같이 擬音한다.<sup>4)</sup>

2) 김하라, 위의 책, pp.119-120.

3) 본고의 平聲은 대응되는 上聲·去聲·入聲을 포함한다.

4)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05, pp.498-501.

『廣韻』韻類	開合四等	先秦	西漢	東漢	南北朝	隋唐	五代	宋	元	明清	現代
模	合口一等	-ua	-uo		-o	-u					
豪	開口一等	-o			-ou	-au	-au				
		-u	-o		-ou	-au	-au				

그러나 高本漢(Bernhard Karlgren)은 遇攝 一等 模韻의 古音을 [-uo] 로 擬音한다. 이 음을 高麗에서 한자의 중국음을 받아들일 때 [-o] 로 기록하고, 일본 吳音에서는 [-u] 로 기록하였다고 주장한다.<sup>5)</sup> 일본의 이토 지유키는 王力의 주장을 근거로, 模韻 글자가 한국 한자음에서 ‘ㄱ’ 이외에도 ‘ㄷ’로 반영되는 글자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했다.<sup>6)</sup> 高本漢은 또한 效攝 一等的 古音을 [-au] · [-o] · [-ou] 로 각각 擬音하고, 중국의 각 방언과 일본 吳音의 반영상황을 분석하면서, 그 중 [-o] 는 [-au(ou)] 의 單音化라고 하였다.<sup>7)</sup> 이처럼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복모음이 중국 방언이나 한자문화권 지역에서 단모음으로 표기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東國正韻』의 申叔舟「序文」에서도 한국 한자음에 대해서 “至於文字之音，則宜若與華音相合矣，然其呼吸旋轉之間，輕重翕闔之機，亦必有自牽於語音者，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문자의 음에 있어서는 마땅히 중국음과 서로 합치될 것 같으나, 호흡이 돌고 구르는 사이에, 輕重과 翕闔의 동작 역시 반드시 말의 소리에 저절로 끌리게 되어, 이것이 문자의 음이 또한 따라서 변하게 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듯이, 외래어의 발음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자국어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 한자음의 모태음과 高本漢 및 이토 지유키 등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할 때, 중세 한국어 한자음에 나타난 ‘ㄱ’음의 반영범위는 단순히 [-o] 뿐만 아니라 [-uo] · [-ou] · [-uo] · [-au] 등, 韻腹이나 韻尾에 圓脣의 [o] · [u] · [ɔ] 가 포함된 복모음까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국 한자음의 반영내용을 근거로 고찰하면, 조선인의 중국어음에 대한 認知 및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에 사용된 ‘ㄱ’표기의 실제 반영내용의 범위는 좀 더 확대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3. 중국 漢語 어음변천과 ‘ㄱ’ 반영 내용 분석

본 절에서는 『譯語類解』의 표기대상이었던 당시 중국 북경지역 위주 北方지역 실체음<sup>8)</sup>에 대한 파악을 통해 ‘ㄱ’음의 반영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譯語類解』右音 ‘ㄱ’음은 현대 漢語

5) 高本漢 著, 羅常培·李方桂 合譯, 『中國音韻學研究』, 臺北商務印書館, 1940, p.522.

6) 이토 지유키 저, 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 역락, 2011.04, p.208.

7) 高本漢 著, 羅常培·李方桂 合譯, 위의 책, p.485.

8) 元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中原의 공용어가 北京語를 기반으로 하는 북방어로 바뀐다. 이 北方語가 바로 漢兒語言(漢語)이다. 이에 당시 고려에서도 漢語와 몽고어 교육을 위해서 司譯院을 설치하였으며, 『老乞大』와 『朴通事』를 편찬하였다. 鄭光, 「朝鮮時代 中國語 教育과 教材 -『老乞大』를 中心으로-」, 『이중언어학』, 제24호, 二重言語學會, 2004.02. pp.23-24.

에서 [-uo] 로 발음되는 글자와 [-ə] 나 [-o] 로 발음되는 일부 글자의 어음을 표기한다.

## 1) 현대 漢語 [-uo] 음 글자

중국 어음변천에서 현대 중국어에서 [-uo] 로 변하는 글자는 대부분 『廣韻』歌韻·戈韻·鐸韻·藥韻·覺韻·陌韻·麥韻·德韻·末韻·沒韻·薛韻에 포함된 일부 글자이다. 이 글자에 대한 학자들의 어음변천 연구 내용은 元明清에서 現代까지의 어음자료를 통해 규명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합류시기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특히 丁鋒은 중국어에 대한 일본 琉球語의 對音 자료를 통해 명나라 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丁鋒은 현대 중국어에서 [-uo] 음은 1600년대 초중반 명나라 관화음계를 반영한 운서에서도 어음변천이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대 중국어에서 [-uo] 로 합류하는 글자의 명나라 어음에 대해서 丁鋒은 『琉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에서 ‘ue韻母(“國或拙說郭掇”等)變成uo’·‘藥韻(開口)照組字(“酌綽着若弱鑠”等)韻母由io變o後產生合口介音, 讀作uo’현상을 주목하였다. 그는 ‘歌韻與鐸韻(開口)舌齒音讀uo’은 『中元音韻』에 이미 완성되었지만, ‘ue韻母(“國或拙說郭掇”等)變成uo’와 ‘藥韻(開口)照組字(“酌綽着若弱鑠”等)韻母由io變o後產生合口介音, 讀作uo’는 명대 관화음계 운서에서 나타나지 않고, 『李氏音鑑』(1805)때 비로소 반영된다고 하였다.<sup>9)</sup> 특히 1600년대 명나라 관화음계를 반영한 『西儒耳目資』(1626)·『切韻聲原』(1641)·『韻略會通』(1642)에서는 ‘ue韻母(“國或拙說郭掇”等)變成uo’와 ‘藥韻(開口)照組字(“酌綽着若弱鑠”等)韻母由io變o後產生合口介音, 讀作uo’의 두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sup>10)</sup>

王力은 한어 어음변천사에 대한 전면적인 어음변천을 연구하여 [-uo] 음의 변천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王力の 『漢語語音史』에서 淸나라 어음의 분석근거로 삼은 것은 北音系統 어음을 반영한 『五方元音』(1654-1673)<sup>11)</sup>이다. 이 책은 『譯語類解』(1690) 어음표기의 대상이 되는 청나라 실제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王力과 丁鋒 두 사람의 연구를 통해, 『譯語類解』(1690)의 배경이 되는 중국 근대시기 어음에서 나타나는 현대 [-uo] 음 글자의 어음 변천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譯語類解』의 ‘ㄱ’음 표기는 『廣韻』歌韻·戈韻(合口一等)·鐸韻·覺韻·末韻 글자에 나타난다. 『廣韻』歌韻·戈韻(合口一等)·鐸韻(開口)·覺韻·末韻 중 현대 한어에서 [-uo] 로 발음되는 글자의 어음변천 내용을 王力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12)</sup>

9) 丁鋒, 『琉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02, p.62, p.64, p.221.

10) 丁鋒, 위의 책, p.62, p.64, p.221.

11) 趙懋之의 고증에 의하면 樊騰鳳의 『五方元音』은 順治11년에서 康熙12년(1654-1673) 사이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趙懋之, 『等韻源流』, 台北: 文史哲出版社, 1985.07, p.226.

12) 본고 王力の 어음변천 내용은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05, pp.504-513을 참고하여 정리한다. 이하 같다.

『廣韻』韻類	開合四等	先秦	西漢	東漢	南北朝	隋唐	五代	宋	元	明清	現代		
歌	開口一等	-ai	-a					-ɔ			-uo		
戈	合口一等	-uəi		-ua				-uɔ					
		-uai		-ua				-uɔ					
		-ua											
鐸	開口一等	-ak							-ɔ				
覺	開口二等	-eɔk			-euk		-ɔk		-eak			-iau	-uɔ
									-ɔ				
		-eok			-eɔk				-au				
末	合口一等	-uat	-uat					-uat	-uɔ				

위의 도표에 의하면 『廣韻』歌戈覺末 네 운과 鐸(開口)운 글자의 元音은 대부분 [a] / [ɑ] 에서 [ɔ] 를 거쳐 [o] 까지 高化의 변천을 거치면서, 명청시기에 합병했음을 알 수 있다. 王力은 이 글자의 명청시기 元音을 [ɔ] 로 擬音한다. [ɔ] 와 [o] 는 모두 舌面後音으로 舌位가 半低와 半高로 차이가 날 뿐인 모두 圓脣의 유사음이다. 위의 도표에서 歌韻·鐸韻(開口)의 명청시기 어음에 대해서는 介音 [-u] 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丁鋒은 ‘歌韻與鐸韻(開口)舌齒音讀uo’현상이 元나라 『中原音韻』에 이미 나타났고, 이후 明代 官話音系 운서인 『韻略易通』(1422)·『等韻圖經』(1602)·『交泰韻』(1603)·『韻略匯通』(1642)에도 나타난다고 하였다.<sup>13)</sup> 두 사람의 의견은 合口呼 [-uo] 의 발생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이 글자의 『譯語類解』에서의 표기는 어떠할까? 이 글자 중 현대 중국어에서 [-u o] 로 변한 예는 『譯語類解』에서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字	『廣韻』				『譯語類解』左右音	
	反切	聲類	韻類	開合四等	左	右
駝	徒河切	定	歌	開口一等	떠떠	토
挪	諾何切	泥	歌	開口一等	너	노
拖	吐邏切	透	箇	開口一等	퇴	토
落烙洛洛駱酪	盧各切	來	鐸	開口一等	랄랄	로
佐	則箇切	精	箇	開口一等	저	조
羅蘿囉囉	魯何切	來	歌	開口一等	러워	로
多	得何切	端	歌	開口一等	더터	도
搓搓	七何切	清	歌	開口一等	처	초
我	五可切	疑	哿	開口一等	어	오
火	呼果切	曉	果	合口一等	휘휘회호	호
剗	羸臥切	清	過	合口一等	취취	초
蒿 <sup>14)</sup> 倭 <sup>15)</sup> 窩(窠)	烏禾切	影	戈	合口一等	휘	오
坐座	徂臥切	從	過	合口一等	쭈쭈쭈	조

13) 丁鋒, 위의 책, p.221.

字	『廣韻』				『譯語類解』左右音	
	反切	聲類	韻類	開合四等	左	右
掟情	徒果切	定	果	合口一等	되되더	도
鎖	蘇果切	心	果	合口一等	쉬쭈	소
過畏(裹)	古臥切	見	過	合口一等	귀	고
臥	吾貨切	疑	過	合口一等	어	오
朶	丁果切	端	果	合口一等	더	도
唆蓑梭	蘇禾切	心	戈	合口一等	쇠서	소
娑銼	昨禾切	從	戈	合口一等	쭈	조
唾	湯臥切	透	過	合口一等	튀	토
果鍋鍋塢	古火切	見	果	合口一等	괴귀	고
夥	胡果切	匣	果	合口一等	휘	호
波	博禾切	幫	戈	合口一等	뷔	보
貨	呼臥切	曉	過	合口一等	휘휘	호
螺驟	落戈切	來	戈	合口一等	러	로
錯	倉各切	清	鐸	開口一等	찰	초
昨/柞	在各切	從	鐸	開口一等	짚/짚	조
索	蘇各切	心	鐸	開口一等	살	소
作	則落切	精	鐸	開口一等	갈	조
托	闔各切	透	鐸	開口一等	탈 툐	토
戳(戮)	敕角切	徹	覺	開口二等	찰	초
卓zhuo	竹角切	知	覺	開口二等	찰찰	조
啄	竹角切	知	覺	開口二等	찰찰	조
聒	古活切	見	末	合口一等	경	고
豁	呼括切	曉	末	合口一等	형	호
活	戶括切	匣	末	合口一等	형 형	호
鉞	蒲撥切	並	末	合口一等	뵤	보
撮	倉括切	清	末	合口一等	철	초
奪	徒活切	定	末	合口一等	뵤	도
掇	丁括切	端	末	合口一等	뒤	도

『譯語類解』에서는 현대 한어에서 [-uo] 로 발음되는 歌·覺·鐸韻 舌齒音 글자와 戈·末·覺韻字\*가 모두 右音에서 ‘ㄱ’로 표기되고 있다. 丁鋒의 가설이 옳다면, 『譯語類解』右音의 ‘ㄱ’은 중국 근대시기의 合口呼 [-uo] / [-uo] 를 표기하고 있고, 王力の 가설이 옳다면, 『譯語類解』右音의 ‘ㄱ’은 단모음 [-ɔ] 와 복모음 [-uo] / [-uo] 를 동시에 표기한다.

## 2) 현대 漢語 [-ə] 음과 [-o] 음 글자

14) 『集韻』 戈韻에 보인다. 본고에서는 『廣韻』에 보이지 않는 글자는 『集韻』을 참고한다. 이하 같다.

15) 『集韻』 戈韻에 보인다.

그렇다면, 『譯語類解』 右音의 중국 근대 북방음의 단모음 [-ɔ] 에 대한 표기는 어떠하였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 한어에서 단모음 [-ə] 나 [-o] 로 변천한 글자에 대한 『譯語類解』의 표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중국 한어 어음변천에서 『廣韻』 歌韻 일부 글자와 戈韻(合口一等) 喉音字는 현대 한어에서 [-ə] 로 발음되고, 歌·戈(合口一等)·鐸(開口)·末·沒韻의 일부 글자는 [-o] 로 발음된다.

먼저, 현대 한어에서 [-ə] 로 발음되는 글자의 어음변천은 다음과 같다.<sup>16)</sup>

『廣韻』 韻類	開合四等	先秦	西漢	東漢	南北朝	隋唐	五代	宋	元	明清	現代
歌	開口一等	-ai	-a					-ɔ			-ə
戈	合口一等	-uəi		-ua				-uo			
鐸	開口一等	-ak							-ɔ		

위의 도표에 의하면, 현대 중국 漢語에서 [-ə] 로 발음되는 戈韻 合口一等 글자가 宋元明清시기에 合口 [-uo] 로 발음된다. 丁鋒 역시 ‘戈韻字讀爲開口’현상이 明代 官話계 운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17)</sup> 그 외 歌鐸 開口一等 글자는 元明清시기에 開口洪音의 [-ɔ] 로 발음된다.

이 글자에 대한 『譯語類解』 右音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字	『廣韻』				『譯語類解』 左右音		現代
	反切	聲類	韻類	開合四等	左	右	
鵠	五何切	疑	歌	開口一等	어어	오	-ə
蛾哦	五何切	疑	歌	開口一等	어어	오	
科蝌課	苦禾切 苦臥切	溪	戈 過	合口一等	꿔꿔	코	
和	戶戈切	匣	戈	合口一等	허헝	호	

위의 도표를 보면, 근대시기 중국 한어에서 [-ɔ] 로 발음되고, 현대 한어에서 開口의 [-ə] 음으로 발음되는 歌韻과 戈韻(合口一等)의 글자가 『譯語類解』 右音에서 ‘ㄱ’로 표기되어 있다. 그 중 戈韻 合口一等 글자 科蝌課의 明清시기 音價는 合口の [-uo] 이지만, 『譯語類解』 右音에서는 ‘ㄱ’로 표기된다. 『譯語類解』 右音 ‘ㄱ’가 근대 [-ɔ] 와 [-uo] 음을 표기하고 있다.

그 외에 歌·戈(合口一等)·鐸(開口)·末·沒韻의 일부 글자는 기본적으로 현대 한어에서 開口의 [-o] 음으로 변한다. 末韻과 沒韻의 ‘脣音合口讀開口’현상은 明代 官話系 韻書에 나타나지 않는다.<sup>18)</sup>

16) 王力, 위의 책, p.504, p.507.

17) 丁鋒, 위의 책, p.221.

18) 丁鋒, 위의 책, p.221.



이 글자에 대한 『譯語類解』右音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字	『廣韻』				『譯語類解』左右音		現代
	反切	聲類	韻類	開合四等	左	右	
坡	滂禾切	滂	戈	合口一等	꺄	포	-o
破	普過切	滂	過	合口一等	꺄	포	
簸	布火切 補過切	幫	果 過	合口一等	뵐	보	
婆	薄波切	並	戈	合口一等	뵐뵐	포	
摩磨	莫婆切 摸臥切	明	戈 過	合口一等	뵐	모	
薄	傍各切	並	鐸	開口一等	발	보	
脖	蒲沒切	並	沒	合口一等	뵐	보	
哱	普沒切	滂	沒	合口一等	뵐	보	
撥	北末切	幫	末	合口一等	뵐	보	
沫末	莫撥切	明	末	合口一等	뵐	모	

위의 도표에서 보면, 『譯語類解』右音에서는 중국 한어 어음변천과정에서 [-o] 음으로 발음되는 歌·戈(合口一等)·鐸(開口)·末·沒韻의 글자가 ‘ㄱ’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重唇의 글자가 많이 보인다. 이 글자는 모두 明清시기에는 단모음 [-ɔ] 19)로 발음되었다.

오늘날 [-o]로 발음되는 기타 唇音인 『廣韻』陌韻 開口二等 白(뽕뽕 버)伯(뵐뵐 버)帛(뽕 버)百(뵐 버)栢(뵐 버)珀(뵐 퍼)拍(뵐 퍼)와 德韻 開口一等 墨(뵐뵐 머)麥韻 開口二等 𪎭(뵐 버) 등은 明清시기 발음이 [-e] 나 [-ɐ] 이었다.<sup>20)</sup> 이 글자는 『譯語類解』右音에서 ‘ㄴ’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譯語類解』의 ‘ㄱ’음은 明清시기 [-ɔ] 음을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현대 漢語에서 [-uo]로 발음되는 글자와 [-ə] 나 [-o]로 변천하는 글자의 근대시기 어음과 『譯語類解』右音의 표기내용을 통해서, 『譯語類解』右音 ‘ㄱ’가 근대시기 圓唇 元音 [-ɔ] 계통의 단모음 [-ɔ]와 복모음 [-uo] / [-uo]를 동시에 표기함을 알 수 있다.

#### 4.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의 ‘ㄱ’음 표기 현황

『譯語類解』(1609)의 右音에서 ‘ㄱ’로 표기되는 글자에 대한 조선시대 중국어학습서의 표기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조선인의 [-ɔ]와 [-uo]에 대한 인지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19) 王力, 『漢語史稿』新一版, 北京中華書局, 2003.03, pp.148-149.

20) 王力, 위의 책, 2003.03, p.149, p.157.

王力, 위의 책, 1985.05, p.505.

있다. 현대 한어에서 [-o] · [-ə] · [-uo] 로 발음되고 『譯語類解』에서 ‘ㄱ’로 표기되는 『廣韻』 歌韻·戈韻·鐸韻·覺韻·末韻·沒韻 일부 글자에 대해 근대 중국 北方音을 기록한 한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 『四聲通解』(1517)과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의 북방음 표기<sup>21)</sup>는 다음과 같다.

『廣韻』韻類	開合四等	宋	元	明清	現代	『四通』 <sup>22)</sup>	『華正』 <sup>23)</sup>
歌	開口一等	-ɔ			-uo/ -ə/ -o	ㅏ/ㅓ (現-ə)	ㅏ/ㅓ (現-ə)
戈	合口一等	-uɔ				ㅓ (現-uo/-o)	ㅓ (現-uo/-o)
		-uɔ					
鐸	開口一等	-ak	-ɔ			ㅕ (現-ə) ㅓ (現-uo/-o)	ㅏ (現-ə) ㅓ (現-uo/-o) ㅓ(現-uo)
覺	開口二等	-eak	-iau -ɔ -au	-uɔ	-uo/ -o	ㅓ (現-uo)	ㅓ (現-uo)
末	合口一等	-uat	-uɔ			ㅓ	ㅓ
沒(脣音)	合口一等					ㅓ	ㅓ

위의 도표에서 『譯語類解』(1609) 전후에 편찬되어 중국 북방음을 표기한 『四聲通解』와 『華東正音通釋韻考』에서도 중국 근대 [-o] 와 [-uo] 음을 ‘ㄱ’음으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중국어학습서 ‘ㄱ’음 표기내용에 대한 공통점은 당시 조선인들의 [-o] 와 [-uo] 음에 대한 인지가 유사했음을 나타낸다. 조선인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이 두 어음을 圓脣의 [-o] 가 강조된 어음으로 인지하였고 ‘ㄱ’로 표기하는 경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 5. ‘ㄱ’표기 해석에 따른 기타 어음변천에 대한 고찰

위 3장의 분석을 통해서 『譯語類解』의 右音 ‘ㄱ’가 단모음뿐만 아니라 복모음까지 포함하여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한어 어음변천내용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다.

21) 아래 도표의 근대 어음은 王力, 위의 책(2003.03)과 위의 책(1985.05)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四聲通解』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표기법은 楊人從의 『韓國漢字音과 中國北方音의 比較研究』(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2) 崔世珍이 편찬한 『四聲通解』를 가리킨다.

23) 朴生源이 편찬한 『華東正音通釋韻考』를 가리킨다.

## 1. 『廣韻』鐸韻(合口)·薛韻(合口) 일부 글자의 어음변천 고찰

丁鋒은 『疏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에서 ‘ue韻母(“國或拙說郭掇”等)變成uo’을 언급하면서 이 현상이 明나라 官話 音系 운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24)</sup> 그러나 王力은 그 중 ‘郭’의 어음을 언급하며 [-ue] 단계를 거치지 않고 元나라때 이미 [-uo] 음으로 발음되었고, 명청시기에 이미 [-uo] 음으로 발음된 것으로 추정한다.<sup>25)</sup> 그러나 丁鋒은 ‘ue韻母(“國或拙說郭掇”等)變成uo’현상이 『李氏音鑑』(1805)때 완성되었음이 반영된다고 하였다.<sup>26)</sup>

『譯語類解』에서는 이 글자의 어음이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字	『廣韻』				『譯語類解』左右音	
	反切	聲類	韻類	開合四等	左	右
拙	職悅切	照	薛	合口三等	철	쥬
說	失熬切	審	薛	合口三等	실	쉬쉬
郭	古博切	見	鐸	合口一等	길갈	귀 俗呼고

『譯語類解』右音에서는 薛韻(合口) 拙說에 대해서는 [-ue] 를 표기한 ‘며(ㅼ)’로 나타나지만 郭에 대한 표기는 [-uo] 에 대한 표기음 ‘귀’로 나타나고, 俗音에서 ‘ㄱ’가 나타난다. ‘ㄱ’의 반영범위가 복모음도 포함하기 때문에 『李氏音鑑』(1805)보다 앞선 청나라 康熙년간에 郭의 [-uo] 음이 출현한 것을 증명한다.

## 2. 개별 글자의 어음변천 시기 고찰

『廣韻』魚韻 上聲 所

『廣韻』魚韻 正齒音은 현대 한어에서 [-u] 로 발음된다. 開口三等이었던 所는 明清시기부터 [-u] 음으로 발음되었다.<sup>27)</sup> 그러나 所는 현대한어에서 [-uo] 음으로 발음된다. ‘所’에 대한 『譯語類解』右音의 발음표기는 다음과 같다.

字	『廣韻』				『譯語類解』左右音	
	反切	聲類	韻類	開合四等	左	右
所	疎舉切	疏	語	開口三等	수	소

『譯語類解』右音 ‘ㄱ’의 발음표기 대상이 [-uo(-uɔ)] · [-ɔ(-o)] 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所’는 康熙년간에 이미 [-uo] 음으로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4) 丁鋒, 위의 책, p.64, p.221.

25) 王力, 위의 책, 1985.05, p.505, p.507.

26) 丁鋒, 위의 책, p.64.

27) 王力, 위의 책, 1985.05, p.499.

## 6. 결론

한국인의 발음에는 중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모음이 발달하지 않았다. 한국어 어음체계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중국어 발음을 한국어로 표기할 때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일정한 인지 한계와 표기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타국의 對音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漢語의 어음변천내용을 고찰할 때, 타국 표음체계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당시 실제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譯語類解』 右音에 나타나는 ‘ㄱ’의 표기대상을 한어 어음변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에서도 ‘-ㄱ’음의 표기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譯語類解』과 같은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에 나타나는 ‘-ㄱ’은 단순히 단모음 ‘-o’에 대한 표기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譯語類解』 右音과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에 나타나는 ‘-ㄱ’음의 표기대상은 근대 중국 북방음의 단모음 [-ɔ] 뿐만 아니라 복모음 [-uo] ([-uo])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 내용을 토대로 ‘郭’·‘所’의 어음변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이 글자의 17세기 이전 어음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에 나타난 표음체계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 한어 어음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다면 많은 오차와 오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高本漢 著, 羅常培·李方桂 合譯, 『中國音韻學研究』, 臺北商務印書館, 1940.  
 김하라, 「『譯語類解』의 편찬관 譯官 金指南」, 『奎章閣』, 5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7.  
 楊人從, 『韓國漢字音과 中國北方音의 比較研究』,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王 力, 『漢語語音史』,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 『漢語史稿』 新一版, 北京中華書局, 2003.  
 이토 지유키 저, 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 역락, 2011.  
 鄭 光, 「朝鮮時代 中國語 敎育과 敎材 -『老乞大』를 中心으로」, 『이중언어학』, 제24호, 二重言語學會, 2004.  
 趙憇之, 『等韻源流』, 臺北文史哲出版社, 1985.  
 丁 度, 『集韻』(初版), 臺北學海出版社, 1986.  
 丁 鋒, 『琉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陳彭年 重修, 林 尹 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 臺北黎明文化事業公司, 1976.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译语类解』, 『译语类解』 右音, 汉语对音, ‘ㄷ’의表音内容, 朝鲜时代汉语教材		
	영문	Yeogeoyuhae, Right Side Pronunciation in the Yeogeoyuhae, Phonetic Value of ‘-ㄷ’, Chinese Conversation Book of the Joseon Dynasty		
<div><div>A Study of the Phonetic Value of Right Side Pronunciation ‘ㄷ’ in the Yeogeoyuhae</div><div>Lee, Chun-Young</div><div><p>The Korean pronunciation of diphthongs is relatively less developed than the Chinese pronunciation. When Koreans use Korean to mark Chinese pronunciation, there are many restrictions, and therefore, when using transliterations from other countries to analyse Chinese phonetic changes, we must fully analyse and understand the phonetic systems of those other countries. In this way the transliterations can be fully analysed. This paper analyses the range of right side pronunciations for ‘ㄷ’ in the Yeogeoyuhae, based on Chinese phonetic changes.</p><p>The mark of frequent occurrence of transliteration ‘-ㄷ’ in the Chinese conversation book of the Joseon dynasty. Those who are familiar with the Korean language system will see ‘-ㄷ’ as a single vowel ‘-o’, however, in this pap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use it as the tag object of right side pronunciation ‘ㄷ’ in the Yeogeoyuhae, which used both ‘-?(-o)’ and also ‘-uo(-u?)’ in transliteration. Based on our results, the pronunciation of the phonetic changes in ‘郭’·‘所’, made before the 17th century, is then analysed.</p><p>If there is no understanding of the objects and contents of the transliteration system used in the Chinese conversational book of the Joseon dynasty, errors and misunderstandings will occur when analysing the Chinese phonetics. More careful research and analysis should be undertaken in terms of adopting a cautious approach to the transliteration system.</p></div></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춘영 / 李春永 / Lee, Chun-Young		
	소 속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중국언어문화학과		
	Em@il	leechy@yn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8월 16일	심 사 일	2019년 08월 26일
	수 정 일	2019년 09월 09일	게재확정일	2019년 09월 17일